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제66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참관기

조혜승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제66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이하 CSW)가 2022년 3월 14일(월)부터 23일(금)까지 개최되었다. 금년 제66차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환경 및 재난 위험 감소 관련 정책 프로그램 맥락에서의 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각국 정부들이 자국 내 기후변화 환경 악화 및 재해와 연계된 성불평등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우수사례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에서는 정영애 前 여성가족부 장관을 포함하여 정부대표단이 파견되어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은 자문단으로 참가하며 온라인에서 본 회의를 참관하였다. 아울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 스웨덴 정부는 주 유

엔 대한민국대표부의 후원과 함께 3월 15일(화) 오전 10시(뉴욕 시간)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험 공유”라는 주제로 CSW의 부대행사를 공동주최하였다. 본 원고는 제66차 CSW의 참관내용과 부대행사 개최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논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CSW 66 주요의제 논의내용: 기후변화 환경 및 재난 위험 감소 관련 정책 프로그램 맥락에서의 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금년 CSW 66의 주요 의제는 “기후변화 환경 및 재난 위험 감소 관련 정책 프로그램 맥락에서의 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이다. 마투 조이

니(Mathu Joyini) 제66차 CSW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 환경 악화 및 재해와 연계된 성불평 등은 현재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가장 큰 도전과제라는 점을 명시하며, 본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 재해 대응을 위한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수단을 합의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마 바하우스(Sima Bahous)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사무총장은 기후문제 해결에 있어 전세계 여성과 여아의 완전하고 의미있는 포용과 참여를 촉구하며, 아울러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수많은 여성과 여아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규탄과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이 반드시 종식되어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기후변화·환경 및 재난위험 경감 정책에서 젠더 관점을 접목하는 것은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본 회의에서는 국가 수준의 성인지적인 기후변화·환경 및 재난위험 경감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각 국가의 기후변화·환경 및 재난위험 경감 정책에서의 양성평등 정책 및 전략에 대해 공유되었다. 본 글에서는 유의미한 사례가 공유된 일부 국가의 발언 내용을 소개한다.¹⁾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기후변화·환경 및 재난위험은 전세계 어디에나 있으나, 개발도상국에 끼치는 영향은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기후변화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젠더기반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 공유하며, 기후변화 이슈와 젠더기반폭력 문제가 적절히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발전전략을 통해 환경 정책에서

의 여성의 역할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으며, 성별분리 데이터, 젠더분석, 기후변화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역사회 및 토착민 여성의 에너지/기술 접근성, 여성의 토지 접근성, 토지 소유권 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기후변화·환경 및 재난위험 경감 정책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정부 정책의 다양한 측면에서 젠더분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예컨대 뉴질랜드는 온라인에 젠더분석 툴을 공개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후변화·환경 및 재난위험 경감을 위해 성별 분리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뉴질랜드는 여성 및 토착민의 관점을 담은 데이터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는 그린예산(green budgeting)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 평등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여 수행 중이다. 아일랜드는 기후변화계획 2021을 통해 일부 사회 조치에서의 탄소 세금을 배정하기도 하였다. 아일랜드는 기후변화·환경 및 재난위험 경감 정책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모잠비크 지역사회 여성을 지원하여 기후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등 원조를 통해서도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관련 성평등 이슈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여성 인권이 급격히 후퇴하였으며,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 중 대다수가 여성으로 젠더기반폭력, 성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표명했다. 또한 영국은 성평등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UNFCCC 젠더액션플랜과 글래스고 기후조약 실행강화, 여성과 여아 및 소외계층의 리더십 강화, 여성과 여아의 웰빙지원, 포스트팬데믹 대처강화 등에 대해 영국 정부의 노력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기후변화·환경 및 재난위험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고 언급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여성의 역량강화를 강조하였다. 이란 환경관련

1) 각 국가들의 발언내용은 저자의 참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발언내용은 여성가족부(2022) 제66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회의참가 결과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본 원고의 국가 순서는 국가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제시되어 있다.

부서에 근무하는 여성은 1,171명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수백 명의 여성 CEO가 환경, 바이오 테크놀로지, 에너지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등 여성의 기후변화·환경참여가 활발하다도 언급하였다. 또한 교육부와 환경부가 협업하여 “인간과 환경”이라는 교과서를 개발 중이며, 그린 스쿨(green schools)을 설립 중이다.

이집트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큰 국가 중 하나로서 국가 여성전략 2030을 통해 환경과 관련된 여성역량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집트는 기후변화와 여성에 대해 7가지 우선 분야를 설정하여 ‘1) 기후변화·환경 및 재난위험에 성인지적 접근 적용, 2) 환경분야 거버넌스에 여성의 참여 강화, 3) 그린 경제에 여성의 참여 확대, 4) 여성에 대한 환경과 관련된 건강 및 사회적 함의 도출, 5) 기후변화와 여성에 대한 교육 강화, 6) 기후변화와 여성에 대한 데이터 확보, 7) 기후행동자금을 젠더관점 적용’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우선순위의 이행을 위해 이집트는 국가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은 기후변화·환경 및 재난위험 경감 정책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상이한 수요를 인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일본은 기후변화·환경 및 재난위험 경감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이다. 첫째, 자연재해 관리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고, 둘째, 2020년 국가 성평등정책에서 기후변화·환경 및 재난위험 경감분야를 주요 우선순위로 설정하였으며, 셋째, 재난관리와 성평등 분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예컨대 재난상황 발생 시 여성부처는 재난관리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재난관리부처와 여성관리부처의 여성 공무원 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공유하게끔 한다.

스웨덴은 기후변화와 성평등은 스웨덴 정부의 우선순위 이슈라고 강조하였다. 스웨덴은 2019년은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한 기후변화 액션 플랜을 수립하였으며, 페미니스트 정부로서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에서 모두

기후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러시아 공격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여성 및 여아의 탈출을 지원했다고 밝히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였다.

호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재난 상황을 겪고 있는 국가로서 기후변화대응은 호주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기후변화 대응 작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체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강조했다. 최근 호주에서 겪은 최악의 홍수사태에서 여성의 리더십이 돋보였으며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원에서 호주의 해외원조는 기후변화 준비 및 대응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재난 및 기후변화대응 과정에서 젠더기반폭력 조흔 등의 유해한 관습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등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밝히며, 여성가족부는 성인지적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성별 특성 조사 연구 추진 등 성인지 관점의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간 계획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19 여성 고용위기 회복대책을 수립하였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성평등 증진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2022년부터는 UN Women과의 협력 하에 ‘UN Women 성평등센터’를 대한민국에 설립하여 역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여성가족부, 2022).

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기후변화·환경 및 재난위험의 성불평등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후변화·환경 및

재난위험 경감 정책·사업에서의 성주류화가 강조되었다. 또한 기후변화·환경 및 재난위험 대응 정책에서 변화의 주체로서 여성의 리더십과 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환경 및 재난위험 경감 정책과 사업을 수행할 때 여성을 고려해야 하며, 여성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참여 및 의사결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여성의 예산 접근성과 성별분리데이터, 관련된 법적 정비가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또한, 농업이 주류산업인 개발도상국을 비롯하여 가뭄과 자연재해에 취약한 국가의 경우 식량부족, 여성의 노동부담 증가, 조혼과 성매매, 젠더기반폭력 등의 심각한 성불평등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동의 노력이 촉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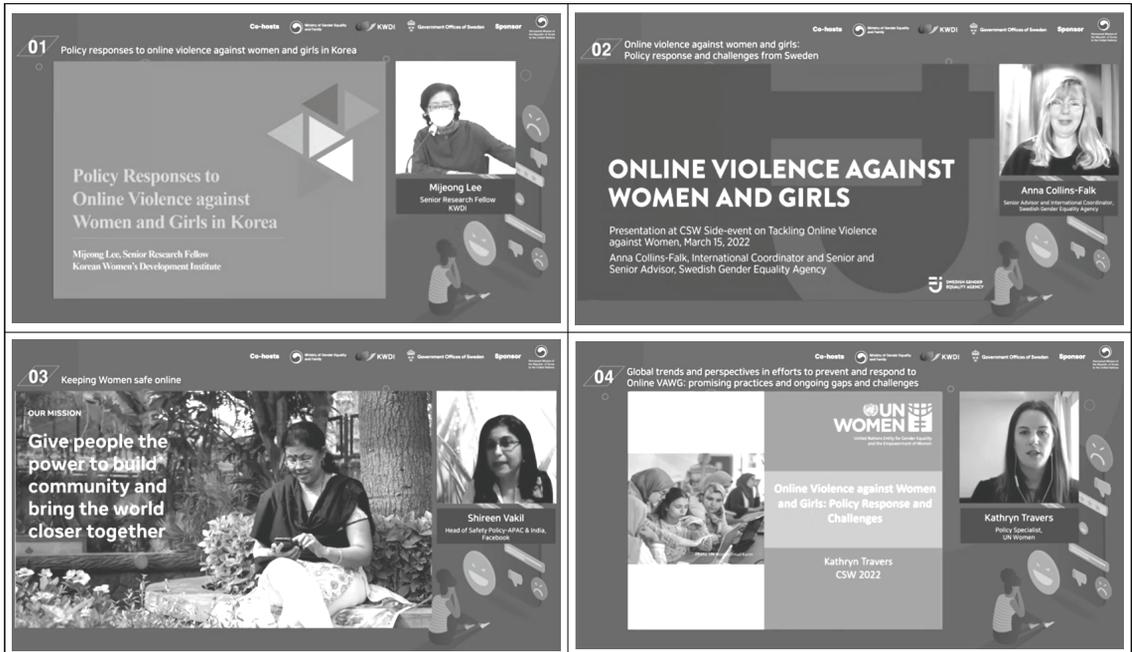
3.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험 공유” CSW 66 부대행사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 스웨덴 정부는 주 유엔 대한민국대표부의 후원과 함께 3월 15일(화) 오전 10시(뉴욕 시간)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험 공유”를 주제로 “제66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부대행사”를 공동 개최하였다. 동 부대행사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사례 및 정책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행사에는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개회사)과 에바 노드마크(Eva Nordmark) 스웨덴 고용·성평등부 장관(개회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유경 원장(축사)을 비롯하여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나 콜린스-폴크(Anna Collins-Falk), 스웨덴 양성평등기구 선임고문, 시린 바킬(Shireen Vakil), Facebook APAC & 인도 안전정책 책임자, 캐서린 트래버스(Kathryn Travers) UN Women 정책전문가가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또한 제66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 참석하는 세계 각국 대표단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본 부대행사에서는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대응 한국 사례, 선진국의 모범사례, 글로벌 SNS의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대응 정책, 유엔여성에서 바라보는 젠더기반폭력 국제동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²⁾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온라인 폭력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지난 10년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온라인 성폭력범죄의 발생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2018년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대응 미비를 비판하는 집단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성범죄 대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요구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사례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2018년)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20년 4월)’을 발표하고 온라인 폭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개혁

2) 구체적인 발표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 좌측 상단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미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나 콜린스-폴크(Anna Collins-Falk), 스웨덴 양성평등기구 선임고문 및 국제 코디네이터, 캐서린 트래버스(Kathryn Travers) UN Women 정책전문가, 시린 바킬(Shireen Vakil), Facebook APAC & 인도 안전정책 책임자

[사진 1]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험 공유 CSW 66 부대행사 발표사진

을 단행하였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를 위해 법정 강간 동의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 조정하고,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경찰의 은밀한 수사를 허용함으로써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과제로는 신고를 포기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체계개선, 효과적 위장수사 실행을 위한 체계구축, 성적 수치심에 대한 용어 개정 필요성, 섹스팅 처벌 필요성에 대한 논의 등을 제안하였다.

안나 콜린스-폴크(Anna Collins-Falk) 스웨덴 양성평등기구 선임고문 및 국제 코디네이터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온라인 폭력: 스웨덴의 정책대응

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온라인 성범죄는 사회에 뿌리 깊게 내재된 성불평등에 근거한다고 강조하며, 예컨대 온라인 성범죄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경험하지만 남성의 경우 전문성과 능력에 대한 공격이 대부분이고 여성의 경우 성적·인격적 공격이 자행된다는 점에서 그 양상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스웨덴 법원은 온라인에서 행해진 성범죄의 경우에도 ‘강간죄’를 적용한 바 있다. 스웨덴은 온라인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증거 기반 폭력 예방을 구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구조의 생성을 지원하기 위한 핸드북(handbook) to support the creation of an overarching structure for

implementing evidence-based violence prevention)’을 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과 성소수자(non-binary people)의 젠더기반폭력 예방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스웨덴은 온라인 성범죄를 예방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린 바킬(Shireen Vakil) Facebook³⁾ APAC & 인도 안전정책 책임자는 “온라인에서의 여성 안전”을 주제로 페이스북의 전략과 사례를 소개했다. 페이스북은 안전정책을 위해 2021년 약 50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안전정책 분야에 약 4만 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안전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중 온라인의 젠더기반폭력과 관련해서는 비동의적 성적 이미지를 삭제하는 플랫폼인 ‘StopNCII.org(이하 NCII)’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NCII란 ‘non-consensual sharing of intimate images(비동의적 성적촬영물)’의 약자로, 페이스북은 영국의 리벤지 포르노 헬프라인(the UK Revenge Porn Helpline)과 협업하여 개발된 플랫폼으로서, 성적촬영물들을 사전에 탐지하여 확산을 막고 잠재적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개발되었다. 본 플랫폼은 단순히 비동의적 성적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잠재적 피해자가 ‘비동의적 성적촬영물’을 NCII에 업로드하면, 이 영상/이미지는 해시값으로 저장되어 향후 온라인 상에서 관련 영상/이미지가 노출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

해서는 이메일을 포함한 개인정보들을 전혀 요구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페이스북은 약 850개 국제 사회 파트너가 있으며 젠더기반폭력을 위해 학계, NGO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예컨대 호주에서는 정부와 협력하여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협력분야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캐서린 트래버스(Kathryn Travers) UN Women 정책전문가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온라인 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국제동향: 성과와 도전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국제동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젠더기반폭력에 대해서도 전세계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특히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성과 디지털 역량에서의 성별격차는 온라인 젠더기반폭력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젠더기반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맥락, 법·정책 등의 제도적 지원, 피해자 지원센터(hotlines), 안전한 온라인 장소 구축, 취약집단에 대한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온라인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데이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증거기반전략 수립을 위해 관련 데이터 구축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나가며

3) 페이스북(Facebook)은 2021년 기업명을 메타(Meta)로 변경하였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젠더 이슈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체결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특히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함을 명시하였다.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기념으로 2021년 개최된 세대평등포럼(Generation Equality Forum)의 주요 의제로 ‘기후 정의를 위한 페미니스트 행동’이 포함된 바 있으며, 정부, 시민사회, 청년 리더, 민간 부문 및 자선단체 등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기후변화와 성불평등에 대해 논의하고,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페미니스트 행동강령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금년 개최된 제66차 CSW에서도 ‘기후변화·환경 및 재난위험 경감 정책에서의 양성평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정책에서의 성주류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성 리더십 제고, 여성과 여아의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향상 및 전문성 함양 등에 대해 각국 정부, 시민사회 대표단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본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바와 같이 기후변화는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안보·인권까지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여성과 여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며 기존의 성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회적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와 젠더 관계를 다루고 있는 다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앙들로 인해 사망 위험이 높고, 그 재앙의 여파로 인해 노동량 증가,

소득 감소, 건강 문제, 폭력 등의 문제로 고통받는 점을 지적한다(이정필·박진희, 2010). 예컨대, 개발도상국의 경우 여성이 물 수집을 주로 담당하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물 부족과 함께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증가 문제가 야기된다. 또 다른 사례로 여성의 제한적인 토지 및 자원 접근성으로 인해 성착취가 일어나기도 하며(Camey et al., 2020), 홍수나 가뭄으로 인한 생활고로 인해 여아의 조혼 및 인신매매 등의 인권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양소희, 2018). 이와 같이 기후변화는 젠더기반폭력과 함께 다양한 성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는 사회문제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기후변화·환경 및 재난위험 정책에 대한 성주류화 노력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회의에서는 2022년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분쟁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원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다수의 국가가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였다. 특히 분쟁상황에서 여성과 여아는 주요 피해자(특히 젠더기반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와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였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기후변화는 젠더기반폭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젠더기반폭력을 주제로 한 부대행사의 의미와 중요성이 더 크게 다가온다. 본 부대행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온라인 젠더기반폭력은 온라인 괴롭힘, 온라인 스토킹 및 협박, 개인정보 공개, 동의 없이 은밀하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 유포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

믹으로 인한 외출금지, 인터넷 사용 증가로 인해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UN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여성 중 4분의 3이 일종의 사이버 폭력에 노출되었으며, 온라인 젠더기반폭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6%의 국가만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⁴⁾ 이러한 의미에서 본 부대행사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온라인 젠더기반폭력의 예방·대응과 관련된 전략과 조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금년 개최된 제66차 CSW 회의는 전 세계가 당면한 기후변화 문제와 성평등 이슈의 연계성을 논의하고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성인지적 접근에 대해 국제사회의 참여와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필요와 동향에 발맞추어 한국이 성인지적인 기후변화·환경 및 재난위험 경감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정부, 학계, 시민사회, 여성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2022) 제66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회의참가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양소희(2018. 11. 21). 기후변화는 성평등 목표 달성에 어떤 위협을 주고 있는가? 기후변화 인식공동체. <http://climate-times.org/?p=18595>, (검색일: 2022.6.10)
이정필·박진희(2010). 젠더 정의 관점에서 본 기후변화 대응 정책.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18.
Castañeda Camey, I., Sabater, L., Owren, C. and Boyer, A.E. (2020). Gender-based violence and environment linkages: The violence of inequality. Wen, J. (ed.). Gland, Switzerland: IUCN.
UN Women(2015. 9). Urgent action needed to combat online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says new UN report <https://www.unwomen.org/en/news/stories/2015/9/cyber-violence-report-press-release> (검색일: 2022.6.7)

4) UN Women(2015. 9). Urgent action needed to combat online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says new UN report <https://www.unwomen.org/en/news/stories/2015/9/cyber-violence-report-press-release> (검색일 2022.6.7)